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생활과 성인기 이행 연구: 일반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남재욱**·김영진***·윤태영****·조은진*****

Ⅰ 알기 쉬운 개요

이 연구는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일반고 졸업생들이 고등학교에서 어떤 경험을 하고, 졸업 후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세종시의 일반고 졸업생 8명과 특성화고 졸업생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진행하고, 학교의 숨은 교육과정(잠재적 교육과정)과 빠진 교육과정(영 교육과정)의 관점에서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일반고에서는 '대학은 당연히 가야 한다'는 분위기와 비진학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 개별적 진로 준비의 제약이 존재했으며, 진학 이외 진로교육과 자립생활 준비를 위한 교육은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청소년들은 소외와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겪으며 순응과 저항 등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했지만, 공통적으로 졸업 후 노동시장과 성인기 삶에 별다른 준비 없이 내던져지게 된다. 졸업 후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비진학 청소년들은 개인화된 방식으로 진로를 탐색하고 일자리를 구했으며, 자립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다. 본 연구는 일반고의 숨은 교육과정이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하며, 전 생애적 관점에서 진로교육과 자립생활 교육을 강화하여 학교 안팎과 졸업 전후가 연결된 방식으로 이들의 성인기 이행을 지원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이 연구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원 교육정책연구소 2023년 현안연구(2023-05) 「비진학 청소년 삶의 현황 및 교육환경 조사」를 바탕으로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작성하였음.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조교수, 제1저자, jwnahm@knue.ac.kr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박사과정, 교신저자, passiontoto@knue.ac.kr

**** 일하는시민연구소·유니온센터 연구위원, 공동저자

***** 충북외국어고등학교 교사, 공동저자

투 고 일 / 2025. 9. 7.

심 사 일 / 2025. 9. 24.

심사완료일 / 2025. 10. 15.

Ⅱ 초록

본 연구는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생활 경험과 졸업 후 성인기 이행 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세종시 일반고 졸업생 8명과 특성화고 졸업생 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실시하고, Philip Jackson의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과 Elliot Eisner의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개념을 중심으로 면담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대입이라는 목표가 표면적 교육과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이 당연한 선택이라는 진단 압력을 경험했다. 또한, 대입 준비라는 제도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면서 또래와 교사의 부정적 시선을 맞닥뜨리게 되었다. 학교 내 권력관계 속에서 이들의 개별적 진로 준비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되기 쉬웠고, 주요대학 진학 중심의 인정 시스템은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지원 배분을 제약했다. 반면 진학 이외 진로교육과 자립생활 교육은 영 교육과정으로 주변화되어 충분히 제공되지 않았다. 기존 진로교육은 대학 진학에 초점을 두고 운영되었고, 직업·노동교육, 경제·금융교육, 사회적 의사소통 등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교육은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했다. 일반고 교육과정 속에서 비진학 청소년들은 소외와 불안, 스트레스 등을 경험하며, 순응과 저항의 연속선상에서 다양한 대응 전략을 취했다. 그러나 공통적으로 졸업 후 노동시장과 성인기 삶에 준비 없이 진입하게 되며, 제한된 사회적 관계망과 제도적 지원 부족으로 진로 탐색과 구직, 자립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본 연구는 첫째,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시선에서 일반고 교육과정의 제도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드러냈으며, 둘째, 이들의 행위자성에 주목하여 감정 경험과 대응 전략을 분석하였고, 셋째, 청소년기 경험과 청년기 이행의 연속성을 보여주었다. 이를 바탕으로, 일반고 잠재적 교육과정을 배제와 낙인에서 인정(recognition)과 포함(inclusion)으로 전환하고, 전 생애 관점의 진로 교육과 자립생활 교육을 주류화하여 학교 안팎·졸업 전후가 연계된 성인기 이행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주제어: 대학 비진학 청소년, 일반고,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성인기 이행, 사례연구

I. 문제제기

고등학교 교육에 대한 우리 사회 관심의 초점은 ‘누가 주요대¹⁾에 가는가?’, ‘어떻게 하면 주요대에 더 잘 갈 수 있는가?’였다. 고교 교육과 관련된 정책과 이를 둘러싼 담론의 상당 부분은 명문대 진학을 위한 대입 제도의 유불리와 공정성에 집중 되어왔다. 지난 10여 년간 두드러졌던 논쟁들, 예를 들면 수시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과 정시 수능 위주 전형의 확대를 둘러싼 논쟁, 의대 증원과 관련된 갈등 등은 사실상 주요대 입시의 방식에 대한 이해관계 갈등이라 보아도 무방하다.

이와 같은 대입 이슈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학생들이 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이다.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않는 비진학 청소년들은 늘 존재했지만, 이들은 사회적, 정책적 관심에서 상대적으로 벗어나 있었다.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대다수가 대학에 진학하는 현실과 관련된다. 1989년만 해도 고졸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지 않거나 못했다면(함병수, 1990), 2024년에는 고졸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간다. 1990년대 중반 이후 대학 정원 증가와 학령 인구 감소의 결과로 대학 진학자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였고, 2000년대에 80%를 넘어섰다. 2010년대에는 진학률이 70% 전후로 낮아지나, 취업이 어려웠던 코로나19 시기 다시 증가하여 2024년 현재 73.6%에 이르렀다²⁾.

상대적으로 특성화고 출신 고졸 청년에 대해서는 정책적 관심과 지원이 이루어진 편이다. 2000년대 이후 경제위기 여파로 저성장이 지속되고 고학력화가 맞물리면서 청년 실업과 ‘일자리 미스매치’가 사회문제로 부상하였고, 고졸 취업 활성화, 선취업 후진학 등 다양한 정책 방안들이 추진되었다(김성남, 하재영, 2018)³⁾. 그러나 대입을 전제로 한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학교 안팎에서 어떤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사회적, 정책적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고에서는 대입 지도를 위한 정보와 노하우가 다년간 축적되어 있고 진학 상담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만, 대학 비진학 학생을 위한 진로 지도나 취업 지원은 공백으로 남아 있다. 제도적 지원책도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 제도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반고 출신 비진학 청소년들은 아무런 준비 없이 사회에 내던져지게 되고,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취약 계층으로 전락하기 쉽다.

- 1) 여기서 ‘주요대’란 서울에 있는 인지도가 있는 대학들과 지방거점국립대를 말한다. 사실 사회적 차원으로 보면 주요대도 아닌 이른바 ‘명문대’에 모든 관심이 집중된다는 평가도 가능하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일반고 교육과정을 주된 관심사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범위를 넓혀 ‘주요대’에 대한 관심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2) ‘교육통계서비스-교육통계-유초중등 교육통계-연도별추이-연도별 졸업 후 상황’(<https://kess.kedi.re.kr/index>)에서 고등학교 졸업자 및 진학자 수를 인출 후 진학률을 산출함. 최종 접속일: 2025년 9월 5일
- 3) 물론, 해당 정책들에 대한 평가가 모두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직업계고 학생의 취업률 증가라는 양적 측면에서는 성과가 있었을지 몰라도, 낮은 임금, 높은 비정규직 비율, 열악한 근로 환경 등 일자리의 질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음을 여러 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다(김정선, 김지영, 추주희, 2016; 김성남, 하재영, 2018).

실제로 일반고 출신 비진학 청소년들은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가장 큰 어려움을 겪는다(김안국, 신동준, 2007; 정연순, 임유진, 2016). 고졸 청년은 대졸 청년에 비해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 진입의 어려움이 더 큰데(권혁진, 유희선, 2011), 특히 일반고 졸업자는 특성화고 졸업자보다 첫 직장 이행률은 낮고(김안국, 신동준, 2007), 좋은 일자리 이행기간은 길다(정연순, 임유진, 2016).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심층 면접한 연구들에서도 일반고 출신 비진학 청소년들의 독특한 어려움이 확인된다(윤민종, 김기현, 한도희, 2015;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남미자, 박진아, 이혜정, 2019; 김아람, 김주희, 김진원, 2024).

한 사람의 생애는 연속적이어서 비진학 청소년의 성인기 이행은 그들의 고교 시절 경험과 연결되어 있다. 김지경, 김윤희, 송현주(2022)에 따르면, 10대 시기 긍정 경험과 부정 경험은 모두 19-24세 시기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며, 무직 상태 후기 청소년에게는 10대 시기 부정 경험의 영향이 집중되어 나타난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은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기에 교육과정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고등학교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게는 종국 교육기관으로서 성인기 이행 직전에 의미 있는 영향력을 행사한다. 이런 맥락에서, 일반고 출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등학교 재학 시절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경험하지 못했는지를 세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이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과 일상생활에서 부딪치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요하다.

하지만 일반고 교육과정 속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경험에 대한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많지 않은 연구들도 비진학 결정 과정을 중심으로 일반고에서의 경험을 일부분만 보여줄 뿐이었다(윤민종 외, 2015; 김영미, 김진경, 윤민종, 2018; 남미자 외, 2019).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일반고 출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고교 교육과정에서 겪은 경험과 감정, 대응 전략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것이 졸업 후 성인기 이행의 어려움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밝히고자 한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시선을 따라가면 일반고 교육과정의 실제 작동 양상이 조금 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연구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일 것이다.

II. 이론적 배경

1.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삶과 성인기 이행

오늘날 청년의 성인기 이행 기간은 전반적으로 연장되었다. Arnett(2004)은 고등교육 기간의 증가, 불안정한 고용 상태, 결혼과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산업사회에서는 ‘성인 진입기(emerging adulthood)’라는 하나의 구분되는 생애 단계가 생성되었다고 말한다. 특히 우리

나라 청년들의 경우, 성인기 이행이 이전보다 뚜렷이 늦어지고 있다. 1990년에 비해 2023년에 대학 진학률은 급증했고, 첫 취업과 분가, 초혼 연령은 모두 늘어났다(김기현, 오병돈, 2024). 심지어 경제적 자립, 주거 독립, 결혼, 출산 등의 과업을 완전히 수행하지 않는 ‘새로운 성인’이 출현하고 있다(김문길 외, 2023).

성인 진입기는 가능성의 시기이기도 하지만, 부담스러운 과업을 수행하는 시간이기도 하다. 주목할 점은, 이 과업 수행의 과정에서 계층, 성별, 학력 등에 따라 청년 내부의 불평등이 작동한다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학력에 따른 차이를 보면, 대학 비진학 청년이 대졸 이상 청년에 비해 이행 과정에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그렇다면 노동시장에서 더 열악한 상황에 놓인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며, 일상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가? 2010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 관한 질적 연구는 참여 대상의 범위가 점차 좁혀지고, 비진학 집단 내 차이와 교차성에 주목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은기수, 박건, 권영인, 정수남(2011)은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일부로서 대학 비진학 청년의 생애 과정과 성인기 이행의 양상을 드러냈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 만을 대상으로 한 본격적인 실태 조사는 김지경과 이광호(2013)에 의해 이루어졌다. 비진학 청소년 중에서도 일반고 졸업자가 이행에서 더 큰 어려움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배경으로, 이후 윤민종 외(2015)와 김영미 외(2018)는 일반고 출신 비진학 청소년의 학교생활과 이행 경험을 심층적으로 파악하였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 내부의 차이와 다양성을 드러낸 연구도 있었다. 김지경과 이광호(2013)는 비진학 청년을 취업자, 구직자, 준비자, NEET(Not in Employment, Education or Training)로 분류했고, 김진원, 김아람, 이로미, 김은비와 김주희(2022), 김아람 외(2024)는 비진학·미취업 청년의 유형을 다시 분류하며 맞춤형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력과 계층의 교차성에 초점을 둔 연구로, 남재욱 외(2018)는 고졸이면서 저임금으로 노동하는 청년들이 노동시장 이행에서 겪는 불안정성을 고졸 지위와의 관련성 속에서 파악하였다. 남미자 외(2019)는 일반고 출신 대학 비진학자 중 빈곤 청년들의 생애사를 통해 이들을 배제하는 사회 구조를 드러내었다.

일반고 출신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 주목한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일반고의 대입 중심성을 그 어려움의 배경으로 지목하고 있다(김안국, 신동준, 2007; 윤민종 외, 2015; 김영미 외, 2018; 남재욱 외, 2018; 남미자 외, 2019; 김진원 외, 2022). 일반고가 대학 입시를 전제로 운영되다 보니, 대학 진학을 하지 않는 학생들은 소외, 배제되며 진로 준비에 관한 적절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부유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고의 어떤 특성이 비진학자가 겪는 고교생활의 공통된 양상을 만들어내는가? 일반고의 어떤 성격이 비진학자의 경험 또는

비(非)경험을 초래하고, 이들은 어떤 공통적 상태로 졸업 후 사회를 마주하게 되는가?

질문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교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아야 하지만, 해당 작업을 수행한 연구를 찾기는 어려웠다. 고교생활 경험을 설문조사 또는 심층 면담의 항목으로 포함한 연구가 있었지만, 일반고에서의 독특한 경험을 드러내지 않거나(은기수 외, 2011; 김지경, 이광호, 2013), 대학 비진학 결정의 사유와 과정에 초점이 맞춰서 이루어졌다(윤민종 외, 2015; 김영미 외, 2018; 김진원 외, 2022; 김아람 외, 2024). 남미자 외(2019)도 진학 중심의 일반고에서 비진학 빈곤 청소년들이 겪은 경험을 일부 제시했으나, 다양한 배경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이 일반고에서 공통적으로 겪는 경험을 면밀하게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들의 고교생활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 이들의 졸업 후 삶이 고교시절의 삶과 어떻게 이어져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2.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 그리고 일반고

학생들의 대학 진학을 전제로 운영되며 약 80% 가량의 졸업생들이 대학에 입학하는 우리나라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은 소수자성을 지닌다. 수적으로 소수여서만은 아니다. ‘대학 비진학’ 사실 자체가 진학 준비를 중심으로 운영되는 일반고 교육과정과 부정합하며 이들을 학교 내 각종 자원 배분에서 배제하고 상대적으로 열악한 위치에 놓이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일반고 출신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생활 경험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일반고에서 이들이 처해 있는 소수자로서의 맥락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잠재적 교육과정 (hidden curriculum)과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개념은 공식적 교육과정 이면의 실제 경험되는 교육과정의 양상을 드러냄으로써, 소수자 학생이 학교에서 겪는 경험과 그 의미를 해석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렌즈가 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계획된 교육과정에 들어있지 않음에도 학생들에게 획득되는 어떤 것이며, 영 교육과정은 계획된 교육과정에 포함되어 있음에도 그들에게 획득되지 않는 지식을 지칭한다(박재형, 2021). 따라서 이 개념들은 상호보완적으로 사전에 계획된 공식적 교육과정이 학교와 교실 현장에서 어떤 과정을 통해 구현되는지, 학생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학생들에게 실현된 교육과정은 어떠한 것인지 파악할 수 있게 한다.

Philip Jackson(1968)은 학교에서 잠재적 교육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었다. 학교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별한 사건들(highlight)이 아니라, 학교 시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상적이고 반복적인 활동들(routine)이다. 그는 학교생활의 주요 특징을 ‘군집,

평가, 권력'으로 설명한다. 학교는 다수 학생이 밀집하여 오랜 시간 동안 생활하는 공간으로, 학생들은 '군집(crowd)' 속에서 생활하는 것에 적응한다. 이 과정에서 '지연, 욕구의 거절, 방해, 사회적 방해'를 경험하고, 인내하는 법을 배운다. 학교는 '평가(praise)'의 공간이기도 하다. 학생들은 자신에 대한 끊임없이 평가와 피드백에 익숙해져야 한다. 행동 평가는 학교의 제도적 기대에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에 대해 이뤄진다. 학생들은 평가 장면을 관찰, 비교하며, 인정받는 법을 익힌다. 나아가 그 과정에서 다양한 적응 방식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권력(power)'의 불평등에 적응해야 한다. 교실에서 교사는 학생들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결정한다. 하지만 많은 경우 교사의 요구는 학생이 원래 하려던 것과 전혀 다르므로, 일부 학생들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다(Jackson, 1968).

Elliot Eisner는 『교육적 상상력(The educational imagination)』(1979)에서 학교가 가르치지 않는 교육과정, 즉, '영 교육과정(null curriculum)' 개념을 제시한다. 그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의도적 선택의 산물이며, 누락된 사고 방식과 관점이 무엇인지 식별해야 한다고 말한다. 첫째, 학교 교육과정에서는 지적 과정을 '인지 과정(cognitive processes)'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하며, 인지는 정서(affect), 심리운동 활동(psychomotor activity)과 대비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인지는 언어나 숫자를 사용한 논리적 조작 과정으로 정의된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지적 과정 중 상당수는 비언어적이고 비논리적인 특성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지적 과정이 배제·경시됨으로써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지식과 표현 방식이 왜곡된다. 둘째, 학교는 특정 내용이나 교과목을 가르치지 않거나 적게 가르친다. 예를 들면, 경제학, 법학, 인류학, 심리학, 무용, 시각 예술, 음악 등이 중등학교에서 자주 가르쳐지지 않거나 필수 과목이 아니다. 학생들이 삶을 살아가는 데 유용한 과목인 경제학과 법학은 소수의 학교에서만 가르쳐진다. 이런 방식으로 영 교육과정이 작동하며, 이는 학생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삶의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Eisner, 1979).

학교에서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학생들은 무얼 경험하고 있는지 알아보려면, 계획된 문서를 볼 것이 아니라 학교 현장에서 실제 무엇을 가르치고 가르치지 않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교육과정 문서에 계획되어 있지 않음에도 실제 학생이 배우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주며, 영 교육과정은 표면적 교육과정에 계획되어 있음에도 학생이 배우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드러낸다. 따라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실제적 고교 경험을 관찰하는 데 이 개념들은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는 교실 생활의 특징과 교육과정에서 누락된 것이 대입 중심의 일반고에서 비진학자들에게 어떤 경험과 비(非)경험으로 나타나고, 이는 비진학자의 어떤 감정과 대응전략으로 이어지는지 분석할 것이다. 나아가 고교 시절의 삶이 어떻게 졸업 후의 삶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고자 한다.

III. 연구 방법

1. 사례연구

본 연구는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여 수행하였다. 사례연구(case study)는 ‘개인의 생애 주기나 소규모 그룹 행동, 조직적/관리적 프로세스, 지역 공동체의 변화, 교육성과, 국제관계, 혹은 산업의 발전 과정 등과 같은 현실 세계의 사건들에 대해 전체적이고 의미 있는 특징들을 담아내는 것이 가능한 연구방법’(Yin, 2009)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례연구는 실생활에서 현재 일어나는 현상을 대상으로 하며, 실제 사건을 통제할 수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일반고 졸업생이 청년기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현상을 연구하는 데 적절하다. 둘째, 연구문제의 유형이 ‘어떻게, 왜?’일 경우 사례연구 방법이 적절하다. 이 연구에서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 중에서도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청년기 이행이 어떻게, 왜 더 어려운지 설명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시절 경험과 노동시장 이행과정 및 자립 준비 상황, 청년기 이행의 공통된 경험을 살펴본다. 셋째, 사회적 소수자의 삶과 같이 많이 알려지지 않은 현상을 드러내는 데 사례연구는 유용하며, 문서, 인터뷰, 관찰 등 다양한 증거를 사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독특한 어려움을 문헌 분석과 심층 인터뷰 방식을 통해 분석한다.

2. 연구 참여자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자의 고교시절 경험과 청년기 이행을 살펴보자 세종 지역 고교를 졸업한 총 10명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대상으로 심층면접(in-depth interview)을 수행하였다. 구체적으로 일반고 졸업생이 8명, 특성화고 졸업생이 2명이다.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이라는 경계가 있는 사례의 특징을 더욱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 특성화고 졸업생을 참여자로 일부 포함하였다. 고교생활을 회상하는 방식으로 인터뷰가 진행된다는 점으로 고려하여, 나이는 25세 이내로 제한하였다. 김지경과 이광호(2014)가 제안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에 따라,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진학을 하지 않은 경우와 대학 진학 후 중퇴한 경우를 포함하였다. 단, 청년 초기에 노동시장과 자립생활에서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재 진학 준비 중인 경우는 포함하지 않았으나 선취업 후진학 계획자는

포함하였다. 또한 취업 중, 취업 준비 중, NEET를 포함하였다.

표 1

연구 참여자 선정 기준

구분	내용
연령	- 만 19~25세
교육 상황	- 세종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 (고교 중퇴자 제외) - 대학 비진학 또는 진학 후 중퇴 포함
진학 상황	- 현재 진학 준비 중인 경우(재수, 삼수 등) 미포함 - 선취업 후진학 계획자 포함
취업 상황	- 취업 중, 취업 준비 중, NEET 포함
고교 유형	- 일반고 또는 특성화고 졸업자 (영재고, 특수목적고 제외) - 일반고 중심으로 모집

연구 참여자는 세종시 일반고와 특성화고의 교사들을 통해 모집했다. 심층면접 기간은 2023년 10월에서 12월이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기초 정보는 표 2와 같다. 참여자 모집이 모두 교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는 사실은 참여자의 특성이 편향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대부분의 참여자들이 졸업 후에도 교사와 연락을 지속하고 있었으며, 교사들은 참여자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이는 고졸 비진학 청년들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고교 생활에 충실히 참여했거나, 주도성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자기 삶을 개척해나간 청년들이 본 연구의 참여자 중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2

연구 참여자 기초 정보

구분	졸업연도	출신고교 유형	학력	현 직업
P01	2020	일반고	고졸	식당 직원
P02	2022	일반고	고졸	축구 코치
P03	2021	일반고	고졸	학원 직원
P04	2018	일반고	4년제 대학 중퇴	편의점 점장
P05	2020	일반고	2년제 대학 중퇴 예정	군복무 중
P06	2022	특성화고	고졸	공기업 직원
P07	2022	일반고	고졸	식당 직원
P08	2023	특성화고	선취업 후진학 예정	무직
P09	2023	일반고	고졸(일반고 직업위탁과정 이수)	식당 직원
P10	2022	일반고	고졸	인쇄업체 디자이너

연구 참여자의 비진학 결정 시기와 사유는 다양했다. 이는 비진학 결정 사유와 영향 요인을 중심으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집단 내 이질성을 밝힌 김지경과 정윤미(2015)의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참여자들의 비진학 결정 시기는 크게 고교 재학 중, 고교 졸업 후, 고교 입학 전으로

나눌 수 있다. 고교 재학 중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경우 주된 사유는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이었다는 점도 기존 연구와 일치한다(김위정, 김양분, 2013; 남재욱 외, 2018; 남미자 외, 2019). 그러나 본 연구 참여자들의 절반 이상은 ‘사후적 비진학’, 혹은 ‘사전적 비진학’에 해당했다. ‘사후적 비진학’, 즉, 고교 졸업 후 비진학을 결정하는 경우는 재수, 삼수 과정에서 비진학을 결정하거나 대학 진학 후 중퇴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계속해서 진학을 준비하다가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을 버티지 못하고 비진학으로 선택하거나, 진학이 필요하지 않은 새로운 진로를 찾아 비진학을 선택하기도 했다. 고교 입학 전부터 대학 진학에는 뜻이 없었던 ‘사전적 비진학’ 유형도 있었다. 이들은 진로가 분명해서, 또는 오히려 진로가 불분명하기에 대학에 진학하지 않았다.

표 3
연구 참여자의 비진학 결정 시기와 사유

시기	주된 사유	참여자
고교 재학 중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	P01, P06, P08
	학교 부적응	P09
고교 졸업 후 (‘사후적 비진학’)	재수, 삼수 과정에서 비 진학 결정	P03 원가족의 경제적 상황 진로 변경
	대학 진학 후 중퇴	P07 충분한 진로 탐색의 부족
		P04, P05
고교 입학 전 (‘사전적 비진학’)	진로가 분명	P02
	진로가 불분명	P10

3. 자료 분석 및 윤리적 고려

심층면접 내용을 녹음 후 전사하였고, 이 전사 자료와 현장에서 연구자들이 작성한 메모, 참여자가 기입한 인구통계학적 조사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인터뷰 전사 자료 분석 시, 초기에는 귀납적 주제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 과정에서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의 분석틀이 참여자들의 고교생활 경험을 해석하는 유용한 렌즈가 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고교생활 경험에 한하여 원자료와 귀납적 주제분석 결과를 다시 교차하여 읽으며 위 분석틀에 입각해 연역적 질적 분석을 하였다. 청년기 이행에 관한 내용은 기존의 귀납적 주제분석 결과를 따랐다.

분석내용의 질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Denzin(2017)의 ‘조사자 간 삼각검증(triangulation among investigators)’을 적용하여 모든 저자들이 심층면접의 내용 및 분석 과정을 교차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이루어졌다(과제번호: KNUE-202310-SB-0385-01). 참여자 모집 시에는 참여 안내문을, 면접 전에는 설명문과

동의서를 제시하였다. 서면으로 ‘고지된 동의(informed content)’ 절차를 거침으로써 참여자의 권리를 보장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생활 경험

적성과 소질에 맞게 진로를 개척하고 민주시민으로서의 자질을 함양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핵심적인 교육 목표이다. 이는 참여자들이 고등학교를 다닐 때 적용되었던 ‘2015 개정 교육과정’, 즉 표면적 교육과정(manifest curriculum)에 명시되어 있다. 학생의 다양한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것은 일반고의 표면적, 공식적 교육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대학 진학은 기본이며 특히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만연해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학생들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의 일상에 스며들어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기능하고 있다. 또한, 공식적 교육과정에 명시된 수업이나 교육 내용 중에서도 진학과 직결되지 않는 것들은 영 교육과정이 되어 배제된다. 잠재적 교육과정의 작동과 영 교육과정의 배제는 ‘자신의 진로에 맞는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평생학습의 기본 능력을 기른다(교육부, 2015)’는 공식적 교육과정의 목표 실현을 방해한다.

1) 비진학자가 경험한 일반고의 잠재적 교육과정

연구 참여자들은 일반고에서 생활하며 대학 진학을 중심으로 한 잠재적 교육과정을 관찰하고 느끼고 있었다. 잭슨이 제시한 ‘군집, 평가, 권력’이라는 학교생활의 세 가지 특징은 진학을 당연시하는 가치관과 맞물리면서 학생들의 감정과 행동, 선택, 대응 전략 등에 영향을 미쳤다.

(1) 군집: 대학 진학을 향한 집단 압력

일반고에서 ‘군집’은 일상생활의 행동 규범을 넘어 주류적 가치관의 압력 기제로 작동하고 있었다. 다수 학생들이 밀집된 교실과 학교에서 집단을 이뤄 생활하다 보면 집단의 압력이 발생한다.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가치관이나 학교에서 중시하는 기준 등이 학교의 대다수 구성원들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있다면, 학교 내 집단생활은 그러한 가치관과 기준에서 더더욱 벗어나기 어렵게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학생들은 집단을 이뤄 학교생활을 하면서 주류집단의 가치를 따라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된다.

처음에 막 대학을 안 가, 안 가겠다. 이렇게 선언한 친구도 있었는데 거의 다 이제 약간 자기는 현실의 벽에 부딪친 거 같다. 이러면서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고3 때. 그래서 결국에 어디 든 이제 4년제 겨우 이제 대, 합격을 해서 들어간 친구들이 거의 대부분 있었어요. [P02]

‘대학은 가야 한다’,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곳이다’라는 사회적 인식이 일반고 내에 지배적인 상황에서, 학생들이 밀집하여 일상을 보내는 집단생활은 이러한 지배적 가치관이 압력으로 작용하게끔 한다. 집단의 힘은 대학 진학을 휩쓸리듯 선택하게 하기도 한다. 이 경우 추후 중퇴로 이어진다.

정말 확고한 신념이 있다면 대학 진학을 안 했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는 이상 다 좀 집단에 이렇게 이끌려서 가는 경향이 적지 않다? 싶어요. [P07]

일단 그, 그 흐름이 진짜 무서웠던 게 뭐라, 어디로도 가야지 이게 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저도 그때 이제 무섭잖아요, 사실은. 닥, 당장 닥치는 게 무서우니까 아 그러면 아무 데라도 가자, 성적 맞춰서. 그래서 그런 그 지금은 중퇴한 학교를 가게 됐고. (중략) 그냥 가야겠다. 남들 다 가니까. 그런 느낌으로 갔던 것 같아서. [P04]

주류 집단의 가치관에서 벗어난 독특한 경로를 선택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 된다. 일반고에 직업교육 위탁 과정이 안내되어도 학생들이 선뜻 신청하지 못하는 것은 집단의 일반적인 경로를 벗어나 비주류의 길을 선택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작용한다.

학교는 정말 많은 학생들이 있고 선생님 한 분당 정말 많은 학생을 이렇게 통솔을 하셔야 되잖아요. 거기서 조금이라도 좀 평범하지 않은 그런 집단을 모집을 한다든가 그런 대우를 해주신다든가 하면은 학생들은 꺼려질 수 있어서 사실 학교에서 뭐 직업 학교 뭐 이런 것도 (중략) 마련을 해줬었던 기억도 있는데 다들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중략) 다들 같은 길을 가는데 갑자기 자기 혼자 그 직업 그 반을 보고 아예 노선을 트는 것도 쉽지 않고 (중략) 그 소수에 들어가기가 좀 꺼려지는 것 같아요. [P07]

(2) 평가: 대학 비진학자를 향한 부정적 시선

학생들은 학교생활을 하면서 자신들의 학습 활동과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평가받는다. 그리고 자신과 친구들이 받는 평가를 반복적으로 관찰하면서 옳고 그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발견하고, 학교 내 평가 과정에 여러 방식으로 적응해 나간다. 1차적으로 비진학 청소년은 ‘대학 진학 준비’라는 학교의 제도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교사와 또래의 부정적인 평가에 맞닥뜨리게 된다. 평가는 직접적인 언어적 표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눈빛과 같은 비언어적 방식으로 이뤄지기도 한다.

처음에는 응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약간 거부감이 있는 느낌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 그런 길을 간다고?’ 이런 식으로 다들 보셨는데. [P02]

일단 비진학이라고 했을 때 일단 시선, 샘들의 “어, 그래도 너 대학은 가야지.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런 식으로의 약간 눈빛들이 약간 보일 때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꼭 대학만이 정답이라는 것처럼 네, 그런 강박이나 그런 교육을 주입 안 하셨으면 좋겠고. [P10]

그러나 비진학 청소년이 교과·비교과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규칙을 따르며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우 비진학자에 대한 부정적 시선이 점차 거둬진다. 주목할 점은, 비진학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경우, 오히려 이 학생의 적응 행동이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다른 애들이 보기에는 “너 그렇게 할 거면 왜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 그냥 수업 시간에 잠도 좀 자고 뭐 수업 시간 그렇게 열심히 들을 필요도 없고 수행평가 그렇게 다 열심히 안 챙겨도 됐던 거네?” [P10]

(3) 권력: 학교 내 권력관계 속 대학 비진학자의 주변화

학생들은 학교에서 권력관계를 읽는다. 그리고 학교생활에서 권력의 차이와 그로 인한 자기 결정의 제약을 경험한다. 기본적으로 학생들은 수업 시간에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지를 지시받는다. 참여자 P01은 진학을 전제로 진행되는 수업에 참여하지 않고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책을 읽으며 개별적인 방식으로 진로를 준비해 나가고자 했지만, 이러한 시도는 문제행동으로 간주되고 제재를 받게 된다.

뭐 선생님들 입장에서도 아니 너네 이거 배우려고 여기 온 거 아니야? 그럼 당연히 수업 들어와야지, 공부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건 또 타당하다고 생각은 듭니다만. (중략) 그 거의 모든 시간을 책을 읽는 데 썼던 것 같습니다. 이게 고등학교 2학년 때는 그게 참 어려웠는데요, (중략) 너는 왜 다른 짓을 하고 있느냐, 이렇게 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얘는 아 얘는 다른 목표가 있어서 진로가 있어서 지향하는 바가 있어서 뭐 책을 읽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거의 뭐 만화책을 읽는 수준으로 이제 여겨지는, 그래서 책을 읽지 못하는 그런 수업시간이 조금 고역이었던 것 같고요. [P01]

비진학 청소년들은 학교 내 권력관계와 학교가 대외적으로 가지는 권리과 명예에 대해서도 관찰하고 있었다. 학업 성적을 높여 주요대에 많은 학생들을 진학시키는 것이 일반고가 대외적으로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라는 점은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친다. 진학 실적 중심의 학교의 대내외적 인정 시스템은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진로, 직업 교육이나 예체능

계열 지망생과 같은 소수 진로 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지원에 자원을 배분하는 것을 방해한다.

선생님들도 약간 그 학생들이 공부를 잘해야지 학교가 인정을 받아서 교장선생님이 그 지시 아래 부장선생님 뭐 이렇게 따다마다 연결이 돼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스템이 그러니까 애들이 생각이 폭이 엄청 좁은 게 느껴졌어요. [P04]

OO고가 그렇게 막 열려 있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되게 강압적이었던 (중략) 교장 선생님이 명예 이런 거 엄청 신경 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인지 예체능에도 그렇게 막 지원을 안 해주시는데 직업반 선생님들도 막 그렇게 모집하지 않으셨고. 그래서. [P07]

2) 영 교육과정: 대학 비진학 청소년 진로교육과 자립생활 교육

진학 준비에 초점이 맞춰진 교육과정은 대입과 무관해 보이거나 불필요해 보이는 교육은 하지 않거나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했다. 이에 따라 참여자들은 일반고에서 노동시장 이행과 성인기 자립에 필요한 적절한 교육적 지원의 결핍과 부족을 경험했다. 일반고에서 비진학 학생을 포괄하는 맞춤형 진로교육과 자립생활을 위한 교육은 공식적 교육과정에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학생들에게 획득되지 않는 '영 교육과정'이 되었다.

먼저 비진학자의 진로 탐색을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부족하다. 또래집단 대부분이 진학을 하는 상황에서 비진학 청소년은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파악하기가 더 어렵지만, 이들의 필요에 맞는 진로교육은 제공되지 못했다. 그간 일반고의 진로교육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많은 성장이 이뤄졌다. 하지만 진로교육이 대학 진학을 표준적 이행의 경로로 전제한 채 진행되었기에, 참여자들은 진로교육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거나, 형식적이고 진학 중심적이다는 점에 대해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평가했다.

질이 별로, 퀄리티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 이거에 중점을 두는 것 같지도 않았고, 네. 그 느낌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나는 거 같아요, 네. [P04]

학교마다 진로 탐색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솔직히 그 시간에 뭐 자습할 때도 많고 뭔가 딱히 이제 진로 탐색을 하는 게 없다고 생각이 돼서. [P05]

진로 시간에는 진로 선생님이 무조건 다 대학으로만 관련해서 수업을 해주시더라고요. (중략) 진로가 대학만 있는 건 아니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좀 수업을 많이 했었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창체(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에도 거의 대학 위주여서 (중략) 그거를 쓴 다음에 선생님께 제출을 해야 막 생기부에 써준다거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저는 대학을 안 갈 거임에도 불구하고 약간 그렇게 생기부를, 그렇게 꾸며서 썼거든요. (중략) 선생님들이 주는 설문지의 기본 자체가 일단 학과를 먼저 쓰는 거였거든요. (중략) 학과에 얹매이게 된 것 같아요, 대학교 학과에. [P10]

진학을 전제로 한 진로교육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참여자들은 학교나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진로교육에 대한 불신을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불신은 진로교육, 나아가 청년을 위한 사회정책의 효과적 전달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인문계 다니는 친구들은 그런 인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아무리 교육청에서 그런 걸 열었다고 그래도 좀 선입견이 있어요. 내 시간을 어쨌든 써야 되는 거니까 그 시간 때 다른 걸 해야 되는데 ‘아이, 또 여기 가 가지고 보면 또 일단 대학교 입학을 설명을 하겠지.’ [P02]

참여자 P10의 경우,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청년 대상 취업 지원 제도를 스스로 찾아보며 구직 준비를 했으나, 취업 이후에 본인이 놓친 혜택들이 많았음을 알게 된다. 이에 대한 아쉬움을 바탕으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진로교육은 학생들이 졸업 후 노동시장 이행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랐다.

비진학 할 때에 또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그 길들을 조금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뭐, 아까 말했던 내일배움카드나 약간 이런 전혀 제가 직접 찾아보지 않으면은 아예 모를 만한 정보들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이런 걸 좀 알려줬으면 좋지 않았을까? [P10]

여러 참여자들은 공통적으로 학교가 진학에 국한되지 않는 자기만의 꿈을 자유롭게 찾아갈 수 있는 장이 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시야를 넓히며 자신이 좋아하고 잘 하는 것을 탐색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는 것이다.

갈증이 좀 있었던 거 같은 게 사람, 학교 때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긴 한데 자기가 잘하는 거를 좀 찾아주게끔 해주고 이게 정말 있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P04]

뭔가 시야를 넓힐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으면은 제가 조금 더 갈피를 빨리 잡아나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P05]

일반고에 진학하더라도 여러 가지 정말 그 직업들을 경험할 수 있고, 전 꼭 해봐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중략) 잘하는 거 찾고 좋아하는 거 찾고 그러려면 학교가 여러 가지 경험을 해야 한다, 이런 느낌으로 가면은 학생들도 그런 “뭔가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런 부담 안 느끼고 편하게 자기 할 거 찾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P07]

특성화고의 경우, 학교 특성상 비진학-취업 희망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상대적으로 더 잘 마련되어 있는 편이다. 일반고에는 학교당 진로교사가 보통 한 명씩 배정되어 있으나, 특성화고에는 진로교사뿐 아니라 직업교사와 현장실습 담당 교사가 존재한다. 특성화고를 졸업한 참여자 P06은 학교 진로교육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고 말한다.

저희 한 학년 선배들이 이제, 이제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좋게 말해서 성공한 케이스 그분들이 직접 학교에 오셔가지고 이것저것 설명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중략) 이렇게 좋은 성공, 성공한 케이스가 되려면 뭐 학창 생활할 때 이거, 이런 노력을 하면 좋겠다. 뭐 그렇게 자기, 이제 아무래도 바로 저희의 미래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그래서 그때 당시에 그게 되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P06]

주목할 점은, 진학 중심의 일반고 시스템에서 ‘진학’이란 좁은 의미의 ‘인지(cognition)’와 관련된 학과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주지 교과의 교육 시간이 많고 진학을 위해 주지 교과의 학업 성취가 강조되는 상황 속에서, 예술 분야를 희망하는 학생들은 주변화된다. 비진학 청소년뿐 아니라 미술과 연기 분야를 각각 지망했던 참여자 P03, P07은 적절한 진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미인정 조퇴와 결석을 하며 방황했다.

근데 솔직하게 말해서 그 학교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었던 것 같아요. 뭔가 왜냐하면 너무 분야를 대략 생각을 해봐도 나한테 이런 분야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이제 뭐 제가 도와달라고 했으면 누군가 도움을 줬을 수도 있겠죠. 근데 사실 기대가 크게 없었던 게 커서 뭔가 우리끼리 해내야 돼 라는 게 좀 있었던 것 같아요. [P03]

예체능은 미술은 또 앉아 있는 시간이 곧 실력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다 그걸 이해해 주시지만 새로운 곳은 이해해 주시는 선생님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없어서 또 학교에서도 예체능을 밀어주지 않고 있었고요. 그래서 그냥 혼자 나왔어요. [P07]

Eisner(1979)는 학교에서 잘 가르치지 않는 ‘영 교육과정’의 예시로 예술 뿐 아니라, 법학, 경제학, 커뮤니케이션 등 시민으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교육을 제시하였다. 참여자들의 응답을 통해 우리나라 일반고에서도 직업·노동 교육, 경제·금융 교육, 사회적 의사소통 및 기타 생활교육 등,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교육이 결핍되거나 부족함을 알 수 있었다. ‘진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것들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않는 것’[P10]이다.

그런 일에 종사하는 데 있어서 그 교육이라고 할 만한 게 하나도 없었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예를 들어 이 서비스직에 종사를 하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임해야 하는가, 손님들을 어떻게 대해야 하고 그 노동에 대한 그런 관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P01]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가 제일 도움이 많이 됐을 거 같아요. (중략) 근데 경제를 엄청 안 다뤘어요. 잠깐 이렇게 썩 지나가는 생각나는 건 경제였던 거 같아요. [P04]

집 구하는 법 이런 것도 그렇고 아니면 약간 뭐 장례식 예절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건 진짜 살아가는 데에 필요한 그런 것들을 학교에서는 안 가르쳐주잖아요, 교과 과정만 가르쳐주고. 또 은행 가도 제가 모르는 용어도 엄청 많거든요. [P10]

3)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감정과 대응 전략

대입 중심의 잠재적 교육과정과 비진학자를 위한 교육적 지원의 결핍 속에서 비진학 청소년들은 소외와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했다. 비진학자들은 본인이 '비주류'라는 감각을 가지고 있었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진학을 준비하는 환경 속에서 소외감과 소속감의 부재를 느꼈다.

네, 거의 그게 기본값이고 제가 거기서 떨어져 나온 비주류다. 이런 느낌이었어요. 거의 유일했었기 때문에. [P02]

대학교 진학을 위해 거의 뭐 발판 삼는 그런 정도의 개념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이제 비진학 청년들에 있어서는 그 굉장히 무관심합니다. 뭐 거의 배척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중략) 인문계 열의 학교가 반드시 대학진학만을 위한 교육시설은 아니니까요. (중략) 실업계 가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대학진학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할 것도 아닌, 이 어떻게 보면 비주류인 학생들은 갈 곳이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략) 진학을 선택한 학생들의 경우는 항상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입설명을 한다던가 뭐 아니면 대학교 체험을 하러 간다든가, 그냥 공부를 하는 그 행위 자체만으로도 소속감과 유대감과 뭐 이런 것들을 느끼게 되는데. [P01]

참여자들은 대학에 진학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후에도 교사와 또래 등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 과정에서 비진학 선택에 대해 끊임없이 자문하며 불안해했고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였다. 집단의 압력은 진학에 초점이 맞춰진 일반고의 환경과 루틴 속에서 수시로 찾아왔다.

연구에 참여한 비진학 청소년들은 진학 중심의 일반고 교육과정 속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을 구사했다. 일반고 교육과정에 순응하기와 저항하기이며, 각각은 적극적인 형태와 소극적인 형태로 나눌 수 있다. 표 4는 이 전략을 매트릭스로 표현한 것이다.

표 4
비진학 청소년의 일반고 교육과정 대응 전략

	순응	저항
적극적	교육과정에 능동적 참여 [P02, P10]	갈등과 불화, 수업 방해 [P09] 미인정 결석과 조퇴 [P03, P07]
소극적	교육과정에 수동적 참여 [P04, P05]	수업 시간에 개인적으로 진로 탐색 [P01]

첫째, 적극적 순응이다. P02와 P10은 일반고 교육과정에 능동적, 적극적으로 참여했으며 배움 그 자체에 의미를 두었다. 이 학생들의 적응 행동이야말로 일반고 교육과정 그 자체에 충실한 행동이었다. 진학이라는 목표가 없었기에 오히려 배움의 본질에 더 가까이 갈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학생들의 행동은 교사와 친구들의 높은 평가로 이어지기도 했다.

저는 학업의 의미는 그냥 진짜 수능을 위한 지식을 쌓는 게 아니라 내가 살아가면서 한 번씩은 필요할 지식들을 쌓는다는 느낌으로 공부를 했었던 것 같아요. (중략) 선생님들이 시키시는 거는 다 하려고 노력은 했어요. (중략) 선생님들이 써주신 생활기록부를 보면 어, 되게 잘 써주셨어요. 되게 친구들이 보면 “이 정도면 대학교 입학해야 되는 생기부 아니니?” 막 이러면서 얘기할 정도로. [P02]

수업 시간에 자고 “어차피 너 대학 안 갈 거니까 뭐 열심히 안 해도 돼.” 이러고 9등급 받고 그런 건 저는 딱히 옳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중략) 학교 교육 과정을 배우는 게 꼭 내신을 따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만 배우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본적인 소양을 쌓고 또 사회 생활도 배우고 그러면서도 다닐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P10]

그러나 졸업 후 아쉬움이나 후회의 감정을 표현하는 학생도 있었다. 일반고에서 교사와 또래의 좋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국영수를 공부하는 등 일반고 교육과정에 적응하며 쏟았던 시간과 에너지, 노력을 자신의 비진학 이후의 삶과 진로를 위해 더 많이 썼더라면 좋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일반고의 학교생활에 적응적으로 행동하는 것과 비진학 청소년의 진로와 삶 준비가 부정합을 일으킴을 보여준다.

둘째, 소극적 순응이다. 참여자 P04와 P05는 대학 진학 중심의 일반고 교육과정 속에서 진로를 찾지 못해 방황하고 학업을 따라가기 벼거워하면서도 학교 수업 등 교육과정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두 사람의 공통점은 일반고 교육과정에 본인이 순조롭게 적응하지 못했던 이유를 자기자신에게서 찾는다는 것이다.

다 내 탓이에요, 사실. 왜냐면 어차피 성공할 사람은 하고, 네, 다 뚫고 갈 사람은 다 뚫고 가는데 근데 그런 게 있으면 훨씬 좋죠. 이거 학교에서 해주면. [P04]

특성화고나 다른 데 알아볼 수도 있었는데 알아보지 못한 제 잘못이고……. (중략) 소외를 받는 부분이 선생님들이 대학 가는 아이들은 원서 접수하는 것도 도와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은데 대학을 가지 않는 아이들에 대해서 줄 수 있는 도움이 딱히 없다 보니까. [P05]

또한, 이들은 집단의 힘에 이끌려 대학에 진학함으로써 일반고의 제도적 기대에 부응하였다. 그러나 고등학교 졸업 후에도 진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 대학교를 중퇴한다.

소극적이든, 적극적이든 순응적으로 행동했던 학생들의 경우, 적응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진로 준비를 위한 시간을 ‘낭비’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학교의 잠재적 교육과정이 영 교육과정과 만나 공식적 교육과정의 실현을 방해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학생이 학교생활에서 적응적으로 행동했던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스스로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여러 방식으로 일반고 교육과정에 저항했다. 소극적 저항은 세 번째 대응

전략이다. 참여자 P01은 진학자 중심의 일반고 교육과정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며, 수업시간에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며 비진학자로서 자기만의 진로를 탐색하고 성인기 삶을 준비하기 위한 공부를 했다. 하지만 이는 문제행동으로 규정되며 교사의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수업 중에 비진학자가 개인적으로 진로를 탐색하는 행동은, 수업시간에 자율적 대입 준비를 허용한 고3이 되어서야 역설적으로 ‘존중’받는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그, 대입을 준비하는 애들은 뭐 수능준비하라고 자율학습을 많이들 주잖아요, (중략) 그냥 터치를 하나도 안 하더라고요. 그냥 너네는 이제 그냥 이미 내 손 밖에 났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물론 저는 그 사이에서 이제 마음껏 책을 읽을 수 있어서 굉장히 행복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때 처음으로 이제 뭔가 학교에서 존중 받는다라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P01]

마지막 대응 전략은 적극적 저항이다. 참여자 P09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후 2학년 때까지 교사들, 친구들과 많은 갈등과 불화를 겪었다. 이러한 부적응 행동이 계획적, 의도적으로 일어난 것은 아니다. 고3 때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기관에 가서 진로를 찾고 직업과 생활, 정서 측면에서 깊이 있는 지원을 받으면서 안정적, 모범적으로 생활한 것을 보면, P09의 부적응 행동은 자신에게 맞지 않지 않는 일반고 환경에 대한 무의식적 저항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거기 갔을 때. 원래 학교 있을 때는 잠만 자거나 아예 학교 안 나가거나 했었는데 거기 가서는 출석도 꼬박꼬박 하고 제 때 제 때 나오고 열심히 공부하고 하니까 좀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았어요, 삶에서. (중략) 학교 생활 문제가 너무 많았거든요. (중략) 친구들이랑 자주 싸우고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자주 싸우고 이랬거든요. [P09]

참여자 P03과 P07은 비진학자는 아니었으나 각각 연기와 미술이라는, 일반고에서는 소수 학생들에 해당하는 진로를 준비하고 있었다. 이들은 일반고 교육과정이 자신들에게는 쓸모 없다고 느끼고 미인정 결석 및 조퇴를 자주 하였다. 특히 P07은 소수 진로를 준비하는 학생을 배려해 주지 않는 학교에 대한 강한 불만을 표출하였다. P03은 교사와 친구들, 학교에 대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었으나, 학교 교육과정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미인정 결석을 통해 학교에서 이탈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들은 졸업 후 대학 진학을 목표로 재수 또는 삼수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비진학으로 방향을 선회하게 된다.

2. 일반고를 졸업한 비진학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자립 준비 과정

대학 비진학 청소년이 일반고에서 경험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들의 졸업 후 청년기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특히 진학 이외 진로교육과 자립생활 교육의 결핍 또는 부족은 성인기 진로 탐색과 구직 과정의 개인화를 낳았고, 자립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과 성인기 삶에 무방비 상태로 내던져지게 된다는 점은 참여자들이 공통으로 마주한 현실이었다.

1) 진로 탐색과 구직 과정의 개인화

진로 탐색과 구직은 기본적으로 개인에게 주어진 과업이라 인식된다. 하지만 대졸자와 고졸자에게 놓여진 상황을 두루 살펴보면, 대학에 진학한 청년은 진로 탐색과 구직 과정에서 대학교 내 취업 센터나 교수 등 학교의 공식적 시스템과 사회적 관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졸자에 비해 적어도 2~4년 정도 준비 기간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대학에 가지 않은 청소년은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노동시장을 맞닥뜨리게 되며,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지 않기에 진로 탐색과 구직 과정에서 공식적, 제도적 도움을 기대하기도 어렵다.

비진학을 선택한 순간부터 그 학생들은, 그 뭐 당장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혹은 이제 또 스무 살, 스물 한 살 대학교 4년 이렇게 통치는 게 아니라 1년, 1년 그 계획이 모두 없는 셈이잖아요. 불안정하고요. 그래서 이제 비진학을 선택한 순간부터는 이제 이 거친 세상을 나 혼자 어떻게 또 살아가야 하나, 그런 좀 현실적인 고민들을 일찍이 시작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P01]

부모의 전문적인 진로 코칭 하에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대학 이외 진로와 삶을 준비해온 P02를 제외하고는, 일반고 출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대부분 혼자서 자신의 진로를 고민했으며 구직에서부터 경력을 이어가는 전 과정을 스스로 책임져야 했다. 주로 아르바이트 증개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고, 지인의 소개를 통하기도 했다. 학교에 소속되어 있지 않았으니 취업 과정에서 학교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던 것은 물론이고, 고용센터나 청년센터와 같은 기관을 이용한 경우도 드물었다.

이게 진짜 웃긴데 그 성공하는 책을 봤는데 그 당시에. 거기서 이제 뭐 백수 그 노답이라고 가서 쿠팡맨이라도 해보라. (중략) 어, 쿠팡맨이라도 하자, 이게 진입장벽이 낮은. 그래서 그때 그냥 바로 가서 면접 안 보고 했죠. (연구자: 이 일자리들은 어떤 경로로 구하셨어요?) 웹사이트가

주로였던 거 같아요. 네. 알바몬 그리고 알바천국 어플들. [P04]

주변 지인들이 누가 여기를 새로 오픈을 하는데 좀 도와줄래? 해 가지고 시작한 경우가 몇 번 있었고. 나머지는 막 이렇게 알바 공고 같은 거 보고 이제 지원을 했던 것 같아요. (중략) 주로 알바몬 이용했어요. (중략) (학원은) 제가 어떻게 알게 되신 분이 새롭게 알게 된 지인 중에 한 분이 학원을 운영을 하시는데, 이제 우리 지금 학원에 이렇게 자리가 빈다, 근데 저를 보시곤 너무 잘할 것 같은데 혹시 관심이 없냐 그래서. [P03]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노동시장 이행 과정이 개인화되어 있는 것의 중요한 요인 중 하나는 이들에게 공식적, 제도적 사회적 관계망의 부족하다는 점이다. 청년의 사회적 자본과 취업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공식적·비공식적 사회적 관계나 연결망은 청년의 취업 가능성을 높인다 (장기영, 2008; 신동준, 류지영, 2014). 그러나 대학 비진학 청소년, 특히 일반고 비진학자의 경우, 진로 탐색과 구직 과정에서 공식적 사회 자본은 거의 작동하지 않았다. 연구 참여자들에게 유의미한 사회적 관계로 자주 언급된 것은 친구와 가족이었다. 이 관계들은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지만, 사적인 것이기에 안정성을 갖기가 어려웠고 도움의 질에 편차도 컸다.

친구들끼리 일상 고민이나 그런 부분들은 서로 너무 잘 들어주고 잘 좋은데 진로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친구도 그 분야에 종사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조언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적지 않나 싶긴 합니다. [P05]

사회자본의 부족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의 지속과 숙련 형성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이들은 노동시장 진입 이후 장기적인 진로 전망 없이 단기 아르바이트나 계약직 일자리와 같은 저임금, 불안정 노동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경력 형성(career building)의 어려움으로 이어지며, 불안정한 삶이 장기화되는 결과를 낳는다.

일반고를 졸업한 참여자들은 노동시장 이행 과정에서 공식적, 제도적 사회자본이 부족함에 아쉬움을 표하며, 고교 재학 시절 진로교육의 강화와 졸업 후 취업 정보 제공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나이를 불문하고 사람은 누구나 진로에 대한 선택을 하기 마련이기 때문에, 진로에 대한 과목이 가장 앞에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P01]

일에 있어서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다 라는 것들을 많이 알려줘야 고를 선택지가 생기지, 아니면 그냥 계속 알바만 하는 거예요. (중략) 여러 가지의 경우들을 좀 많이 알려주면 그래도 꿈이 없는 친구들한테도 당장에 먹고 살 수 있는 제공, 기회 제공되니까. [P03]

나아가 졸업 전후 멘토나 커뮤니티의 존재를 희구하기도 했다.

비진학 같은 경우는 그 길의 갈래가 너무나도 다양하고 갈피를 못 잡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중략) 그런 사람들에게는 멘토가 있으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중략) 또 성인이 되었을 땐 이제 갈 곳이 없고, 뭔가 정서적으로 기댈 수 없고, 내 주변에 친구들은 다 대학 갔는데 나는 어디로 가야하나 소속되지 않았다라는 느낌을 조금 해소시켜주기 위해서, 하나의 비진학청년 뮤 커뮤니티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도 들고. [P01]

네, 근데 대학을 안 가, 대학 가는 친구들에게는 멘토가 많잖아요. 이미 선례가. 근데 이제 대학 안 간 친구들에겐 멘토가 없단 말이에요. 자기 혼자 다 알아보고 해야 되는 건데 너무 막막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멘토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P10]

특성화고 졸업생들이나 일반고 직업위탁과정을 밟은 졸업생의 경우, 구직과 노동시장 진입 과정에서 소속 학교 또는 기관으로부터 공식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

특성화고다보니까 선생님께서 취학, 취업 쪽으로도 여러 방면에서 알아봐주셔 가지고 지금 제가 취업하고 이런 것도 공문이 올라온 거는 친구가 알려줬지만, 이런 게 있다는 건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여러 방면으로 알려주셔서 취업할 수 있는 길은 넓었던 것 같아요. [P06]

그러나 이들이 반드시 원활하게 취업으로 연계되는 것은 아니었다. P09는 직업위탁교육 기관으로부터 취업 연계 제안을 받았지만, 노동조건이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판단하여 이전에 아르바이트했던 곳에서 매니저로 취업했다. P08은 특성화고의 연계를 통해 병원에 취직했으나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발생했고 결국 퇴사를 하게 되었다. 두 참여자의 사례는 직업교육 기관을 통한 제도화된 구직 지원이 질 높은 일자리로의 연계나 안정적인 노동시장 결착까지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님을 보여준다.

2) 노동 및 자립생활 과정의 어려움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일터에서 어떤 태도로 일하고 어떻게 사람들을 대해서 하는지 충분히 배우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 기존 연구에서, 특성화고 졸업자들은 고교 재학 시절 취업을 위한 예절과 회사 생활 시 막내라서 지켜야 할 예절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지만 노동 인권 교육은 충분하지 못했음을 비판하였다(전누리, 김은경, 공현, 2019). 그러나 일반고 출신 비진학 청소년들에게는 이러한 일터 예절이나 인간관계 맺기 교육도 꼭 필요한 것이었다.

제가 막 사회도 모르고 음, 일도 사고도 좀 많이 치고 이러니까. 근데 또 말은 없고 다가오려는 생각은 안 하고 또 선배들이 “요즘 힘든 거 없어요?” 이렇게 물어봐 주셨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뭐 말을 좀 많이 해서 조금의 친밀감을 쌓으면서 일 배울 거 배우고 (중략) 이걸 다 알고서 들어왔으면 그래도 조금 더 처음이 힘들지 않았을 텐데. [P07]

학교에서 뭐라고 해야 화법이라고 해야 되나요? (중략) 상대방한테 어떻게 전달해야 설득력이 있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태도를 보였을 때 상대방은 기분이 나쁠 수 있다. [P03]

자산 관리와 금융생활, 부동산·노동 등 각종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나타냈다. 참여자들은 노동시장 진입 후 소득을 얻게 되면서 소비와 저축 등 자산 관리의 필요성을 느꼈다. 또한, 부동산 계약이나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배운 것만으로는 현실에서 적절한 관리나 대처가 어려움을 지적하였다.

막상 성인이 돼서 일을 해보니까는 그 돈을 쓰는 방식에 있어서 너무 무방비하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중략) 그 돈을 바람직하게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우지는 못했으니까요. (중략) 제가 지금 아는 지식과 정보 수준으로 다른 좀 중요한 부동산 계약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었다고 하면, 사기를 당했어도 이상할 게 없지 않았을까 싶긴 합니다. [P01]

전세 사기라든가 뭐 그런 쪽으로 좀, 금융 쪽으로 많이 알려주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당장 스무 살 돼서 아무것도 모르면 안 되니까. 노동 관련 그런 것도. 근로계약서 쓰는 부분도 모르는 친구들도 있고 그러니까. [P05]

V. 결론 및 논의

1. 요약 및 함의

본 연구는 성인기 이행에 상대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반고 출신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고교생활 경험과 졸업 후 이행 과정에서 나타난 삶의 양상을 살펴보았다. 이를 도식화하면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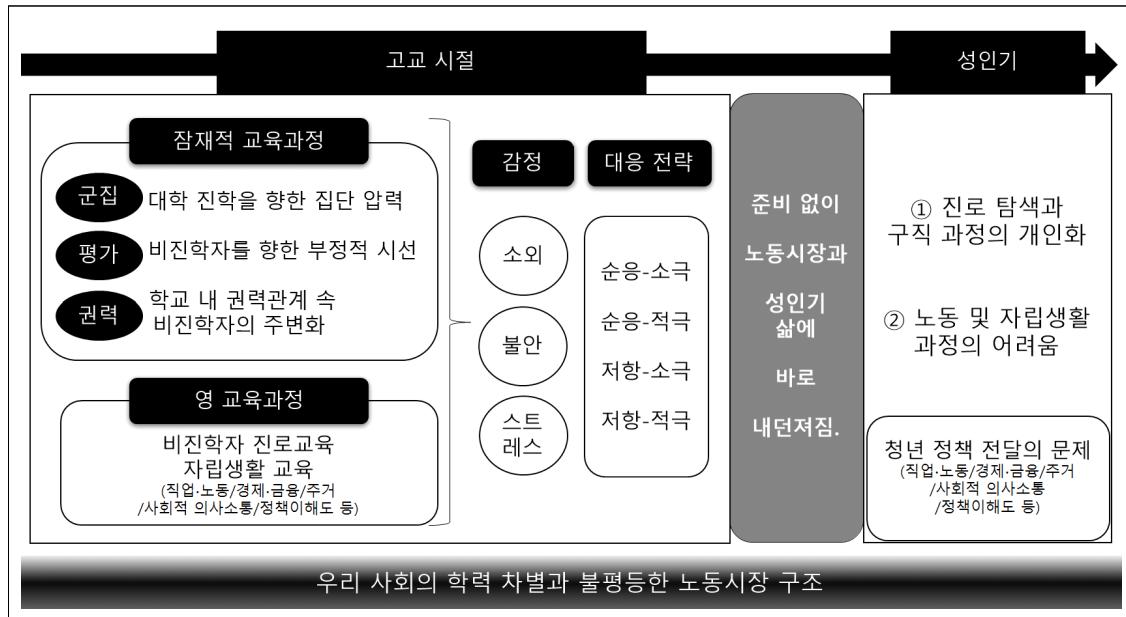


그림 1. 일반고 출신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 생활과 성인기 이행

우리는 잠재적 교육과정과 영 교육과정이라는 렌즈를 통해 일반고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실제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배우지 못하는지 파악하였다. 대입이라는 목표는 표면적 교육과정에 존재하지 않지만,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일반고에서 대학 진학이 당연하고 ‘정상’적인 선택이라는 집단 압력을 느끼게 된다. 또한, ‘대입 준비’라는 제도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함으로써 또래와 교사의 부정적 시선을 맞닥뜨린다.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는 경우 시선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적응적 행동이 높은 학업성취로 연결되는 경우 ‘비정상적’ 행동으로 간주 된다. 학교 내 권력 관계 속에서 비진학 청소년들의 개별적인 진로 준비는 문제행동으로 여겨지며, 주요 대 진학을 기준으로 한 학교의 대내외적 인정 시스템은 비진학 청소년을 위한 자원 배분을 방해한다. 한편, 일반고에서 대입과 직결되지 않는 교육은 누락되거나 적게 가르쳐진다. 우리나라 일반고에서 ‘영 교육과정’은 성인기 이행에 필요한 교육, 즉 진학 이외 진로교육과 자립생활 교육이다. 기준 진로교육은 대학 진학을 전제로, 진학에 초점이 맞춰 이뤄지기에 비진학 청소년들은 적절한 진로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직업·노동교육, 경제·금융교육, 사회적 의사소통 및 기타 생활교육이 결핍되어 있거나 부족하다.

이와 같은 일반고 교육과정 속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은 ‘비주류’라는 감각과 소속감의 부재 속에서 소외와 불안, 스트레스를 경험한다. 그리고 비진학 청소년들은 자기 나름의 방식으로 대응한다. 그러나 대응 전략에 차이와 무관하게 이들은 공통적으로 고교 졸업 후 별다른 준비 없이 노동시장과 성인기의 삶에 내던져지게 된다. 의미 있는 사회적 관계망이 부족한 상황 속에서 진로 탐색과 구직은 개인화된 형태로 나타난다. 자립생활 교육의 결핍 또는 부족

으로 인해 성인기 자립생활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우리사회의 학력 차별과 불평등한 노동시장 구조 하에서 청년 정책 전달의 문제 등 일반고 비진학 청소년들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부족은 이들의 노동시장 안착과 성인기 이행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미를 가진다. 첫째,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시선에서 일반고 교육과정을 관찰함으로써 우리나라 일반고의 ‘교사와 학생들이 뿌리내린 제도적 매트릭스’(Jackson, 1968)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었다. 일반고는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곳이라는 인식이 당연하게 여겨지기만 할 뿐, 실제 어떻게 일반고가 운영되고 있는지 질문한 연구는 찾기 어려웠다. 더구나 그 속에서 대학진학이라는 당연시되는 목표에 비켜나 있는 학생들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드러낸 연구는 없었다.

둘째, 대학 비진학 청소년이 일반고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대응 전략을 취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행위자로서 비진학 청소년의 존재를 재조명하였다. 비진학 청소년을 실패자나 무기력한 존재로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이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름의 고민을 하며 행위자성을 발휘하는 존재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일견 무기력해 보이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이 실제로 ‘생각 없이’ 살지 않으며, 불안 속에서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과 한계를 점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는 윤민종 외(2015)의 연구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셋째, 청소년기와 청년기 사이의 연계성을 보여주었다. 진학 정보와 전문가는 많지만, 진학 이외의 삶을 기획하는 학생에게 줄 정보는 놀랍도록 적은 일반고의 불균형한 상황 속에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은 부유한다. 졸업 후에는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하고 고졸자에 대한 학력 차별이 존재하는 노동시장에 준비 없이 진출하게 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돋는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진로 모색과 구직 과정에서 제한된 개인적 노력이나 사적 사회관계망에 의존하게 한다. 개인이 가진 자원에 의해 성인기 이행의 질이 좌우됨으로써 불평등이 지속된다.

2. 정책 방향 및 후속 연구 제언

혹자는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다. 이 청소년들은 처음부터 특성화고에 가면 되었던 것 아닌가? 일반고 직업위탁교육을 받도록 하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닌가? 특성화고 출신과 일반고 직업위탁교육 경험자의 사례를 통해, 이들 기관이 비진학 청소년의 이행 과정에서 취업 지원에 강점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위 질문은 일견 타당하다. 하지만,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위탁교육이 온전한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중학교 시기 특성화고에 대한 낙인 감소를 통해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특성화고로 더 원활하게 입학할 수 있게 도울 필요는 있다. 하지만 문제는 고등학교 입학 이전에 대학

진학 여부와 미래 전공 및 직업을 결정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이다. 따라서 일반고 진학 이후에 비진학을 결정하는 학생들이 나타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며, 이 때에도 그에 맞는 교육적·정책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학교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성화고라 해서 모든 직업 분야 진로가 잘 구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며, 진로에 맞는 학과가 없는 경우 일반적 숙련(general skill)을 획득할 수 있는 일반고를 선택하기도 한다. 따라서 특성화고로의 전학 등의 방법도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되기는 어렵다.

일반고 입학 이후 직업교육을 희망하는 학생들에게 현재 마련되어 있는 제도는 일반고 직업 위탁교육이다. 하지만 위탁기관 소재지의 지역 편차, 프로그램의 다양성 부족, 사회적 편견 등의 문제가 있다. 우지향, 박승민(2023)은 위탁학생들이 ‘직업반’이라는 낙인과 불완전한 교육 지원 속에 진로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다. 근본적인 문제는, 위탁 교육이 분리교육으로 작용하여 편견과 낙인을 강화하고, 일반고가 직업교육을 포함한 종국교육의 기능을 발휘할 여지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일반고의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생활과 성인기 이행을 돋기 위한 교육·사회 정책은 어떤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가? 첫째, 잠재적 교육과정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다. 즉, 대학 비진학자에 대한 낙인이 아닌 인정(recognition), 배제가 아닌 포함(inclusion)이 학교와 교실 문화 속에 스며들도록 한다. 학교 교실에서 작동하는 잠재적 교육 과정은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역으로 구축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Apple과 Bean(2007)이 착안하였다. 그들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민주적인 가치를 학습하고 민주적인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구조와 과정, 즉 잠재적 교육과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처럼 우리나라 일반고 교실도 대학 진학과 다른 경로를 가는 학생들에 대한 인정과 존중, 동등한 기대가 존재하는 공간으로 재구축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학교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수업이 진학을 위한 시험 준비에만 몰입되어 있지 않고, 비진학 학생들도 교과 그 자체가 주는 배움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도록 이루어져야 한다.

잠재적 교육과정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교사 개인의 희생과 헌신에만 의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교사 역시 군집, 평가, 권력이라는 교실 구조 속에서 다수 학생의 진학 지도를 우선시 해야 하는 집단 압력에 놓여 있다. 주요대 진학을 기준으로 한 학교의 대내외적 인정 시스템과 권력관계는 교사가 주어진 자원을 최대한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나 학생들이 각기 다른 대응 전략을 취한 것처럼, 교사 역시 기계적이 아닌 나름의 예술적 방식으로 가르침의 과정을 수행한다(Jackson, 1968). 따라서 교사가 인정과 포함의 잠재적 교육과정 재구축을 위해 행위자성과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려면, 오히려 과중한 업무 부담을 경감시키는 등의 지원과 여건 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교사 개인을 넘어 학교 차원의 문화 조성을 위한 집단적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둘째, 영 교육과정으로 주변화되어 있던 진학 이외 진로교육과 성인기 자립생활교육을 교육과정 운영에서 주류화해야 한다. 전 생애 관점에서의 진로교육을 강화하여 학생들이 진학 이외 진로에 대해서도 탐색하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돋는 것이다. 또한 자립생활 교육으로써 노동·직업 교육, 경제·금융 교육, 기타 생활 법률이나 사회적 관계 교육 등이 교과·비교과 시간에 보다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 진로교육과 자립생활 교육은 학교 안팎과 졸업 전후를 연계, 통합하는 방식을 취했을 때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즉, 학교 내 교육적 지원과 학교 밖 정책 지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고 통합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것이다. 대학 비진학 청소년에게 고등학교는 종국교육기관이므로, 고교와 학교 밖 청년 지원 기관이 연계 체제를 구축할 때 이들이 졸업 후에도 제도적 지원망 안에 놓여있을 수 있다.

주목할 점은, 이상의 제언이 소수자로서 비진학 청소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전 생애 관점의 진로교육과 자립생활교육, 학교 안팎, 졸업 전후를 연계하는 정책들은 대학 진학자를 포함한 모든 학생들의 성인기 이행에 도움이 된다. 이는 장애인을 위한 출입구가 모두에게 편익을 주는 ‘보편적 디자인’ 원리와 같다. 더구나 사후적 비진학자가 존재하는 등 대학 비진학의 시기와 결정 과정이 다양함(김영미 외, 2018)을 고려할 때, 고등학교 시기 자립생활 교육의 보편적 제공은 대부분의 청년 대상 성인기 이행교육을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식이 될 것이다. 고교 재학 중 대학 비진학을 결정한 청소년뿐 아니라, 별 뜻 없이 휩쓸리듯 대학에 가서 졸업하고, 이후 또다시 방황하며 성인기 이행을 고통스럽게 통과하고 있는 많은 청년이 존재한다. 이들에게도 고교 시절 성인기 전환 교육은 이행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나아가 후속 연구를 위한 세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연구 참여자의 범위와 분석 대상 시점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세종시 고교 졸업자만을 대상으로 했지만, 세종시 이외 지역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기타 특성들은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고교생활과 청년기 이행 과정에 다른 맥락을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다양한 지역의 고교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삶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또한, 성인기 초기 단계의 이행 과정에서 더 나아가 보다 장기적인 이행 경로를 추적한다면, 일반고를 졸업한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이행 양상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둘째, 우리나라 일반고에서 나타나는 대입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을 보다 심층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들의 시선을 통해 일반고의 잠재적 교육과정(hidden curriculum)을 분석하였다. 그러나 일반고의 대입 중심적 특성을 ‘잠재적(hidden)’인 것이라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가? 잠재적 교육과정을 ‘공식 교육과정에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지만 학생들이 은연중에 배우게 되는 경험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 풍토’(성열관, 2024)라 정의

한다면, 일반고의 대입 중심 교육과정은 잠재적 교육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반고의 대입 중심 교육과정은 공식적 교육과정의 부산물이라 보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게 작동하며, 표면적으로도 뚜렷하게 드러난다. 또한, 잠재적 교육과정이 의도하지 않은 학습의 결과라면, 일반고의 대입 중심 교육과정은 오히려 의도적이고 제도적으로 조직된 규범에 가깝다. 이러한 점에서 이는 'hidden'이라기보다는 Free와 Križ(2022)가 제시한 'not-so-hidden-curriculum', 즉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사실상 공공연하게 작동하는 제도적·구조적 교육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타당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적 맥락 속에서 일반고 대입 중심 교육과정의 성격과 특징을 심층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입시 중심 교육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들의 경험과 어려움을 드러내고 이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기 이행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학교 경험과 학령기 제도의 역할에 집중한 연구가 더욱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에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STWT) 등 청년의 성인기 이행 연구는 주로 졸업 후의 경험에 집중한다. 이행의 어려움은 근본적으로 노동시장 불평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청년의 고교 졸업 후 노동시장에서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은 타당한 접근이다. 하지만 10대의 삶과 20대의 삶은 연결되어 있고, 청소년기 학교 경험과 학령기 제도적 지원은 졸업 후 삶에 영향을 미친다. 기존 연구에서도 성인기 이행 과정에서 청소년기 진로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어왔다(윤민종 외, 2015;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따라서, 'school-to-work-transition'에서 'to work'만큼이나 'school to'의 부분에도 더 많은 주목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대학 비진학 청소년을 포함해 이행에 더 큰 어려움을 겪는 집단을 위한 실질적인 교육적·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학교 안팎, 졸업 전후, 교육정책과 청년 정책을 연계하는 방안을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시선으로 일반고의 교육과정을 관찰하고 드러낸으로써 고등학교 체제와 고등학교 교육의 성격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 구조조정, 인공지능 발전으로 인한 노동시장 환경 변화 속에서 대학 비진학을 선택하는 학생은 증가할 수 있다(민주희, 강국현, 2023). 그러나 만약 학교가 미래에도 여전히 주요 대 진학에 초점을 맞춰 운영된다면, 일반고 교육과정과 부정합하는 학생들은 더욱 늘어나 개인적, 사회적 낭비를 초래할 것이다. 비진학 청소년이 겪는 고교생활과 성인기 이행 양상은, 일반고가 대입을 넘어 모든 학생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리트미스 시험지가 될 수 있다. 나아가 우리나라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과 성격, 나아가 고교체제에 대해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져보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교육부. 2015 개정 교육과정.
- 권혁진, 유호선 (2011). 청년층의 학교에서 고용으로의 이행 특성: 성, 학력별 이행과정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8(1), 1-31. doi:10.15855/swp.2011.38.1.1
- 김문길, 김기태, 최선영, 우선희, 김상배, 노법래 (2023). *이행기 청년 삶의 궤적에 관한 연구: 이행 특성의 변화와 요인 분석* (연구보고서 2023-56).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doi:10.23060/kihasa.a.2023.56
- 김기현, 배정희, 김창환, 성재민 (2021). *청년 사회 첫 출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 : 일자리* (연구보고 21-R1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기현, 오병돈 (2024). *2024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 데이터분석보고서 : 성인기 이행* (연구보고 24-일반05-01).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성남, 하재영 (2018). 고졸 취업자의 노동시장 이행 경로 유형화. *진로교육연구*, 31(4), 89-111. doi:10.32341/JCER.2018.12.31.4.89
- 김아람, 김주희, 김진원 (2024). 고졸 비진학 · 미취업 청년의 삶의 유형과 특징: 진로 관련 일상생활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연구*, 35(1), 5-33. doi:10.14816/sky.2024.35.1 .5
- 김안국, 신동준 (2007). 고졸 청년의 노동시장 이행과 취업 실태. *산업노동연구*, 13(2), 125-148. doi:10.17005/kals.2007.13.2.125
- 김영미, 김진경, 윤민종 (2018). 일반고 청소년의 대학 비진학 결정 과정에 대한 이해: 비진학 결정의 배경과 인식을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4(4), 455-474. doi:10.24159/joe.c.2018.24.4.455
- 김위정, 김양분 (2013). 대학진학에 대한 가정배경의 누적적 매개효과 분석. *한국사회학*, 47(4), 262-302.
- 김정선, 김지영, 추주희 (2016). 고졸 청년여성의 취업과 직장 경험에 관한 연구: 광주지역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취업진로연구*, 6(2), 71-96. doi:10.35273/jec.2016.6.2.004
- 김지경, 김윤희, 송현주 (2022). 10대의 경험은 청년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보고 22-기본09).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정윤미 (2015). 대학 비진학 청소년의 비진학 사유 및 비진학 사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청소년학연구*, 22(12), 193-217.
- 김지경, 이광호 (2013). *후기청소년 세대 생활·의식 실태조사 및 정책과제 연구 II: 고졸 비진학 청소년을 중심으로* (연구보고 13-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지경, 이광호 (2014). 정책대상으로서 고졸 비진학 청소년의 개념 및 관점에 관한 소고 (小考). *청소년학연구*, 21(3), 285-306.

- 김진원, 김아람, 이로미, 김은비, 김주희 (2022). 고졸 비진학 미취업 청년에 대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실태와 과제. 수원: 경기도교육연구원.
- 남미자, 박진아, 이혜정 (2019). 대학 비진학 빈곤 청년의 생애사 연구: 일반고 졸업생을 중심으로. *평생학습사회*, 15(1), 25-52. doi:10.26857/JLLS.2019.2.15.1.25
- 남재욱, 김영민, 한기명 (2018). 고졸 청년 노동자의 노동시장 불안정 연구. *사회복지연구*, 49(1), 221-262. doi:10.16999/kasws.2018.49.1.221
- 민주희, 강국현 (2023). *비진학청년 생태계 조사 보고서: 비진학청년의 선택이 다양함으로 존중받는 사회를 위하여* (청년 연구 사업). 사단법인 오늘은.
- 박채형 (2021). *교육과정 연구: 이론과 실제의 대립과 메타프락시스*. 서울: 학지사.
- 성열관 (2024). *교육과정*. 서울: 박영스토리.
- 신동준, 류지영 (2014). 청년층의 사회자본이 취업에 미치는 영향. *The HRD Review*, 17(4), 102-115.
- 우지향, 박승민 (2023). 일반고 직업교육 위탁학생의 진로적응 경험 연구. *진로교육연구*, 36(1), 143-162. doi:10.32341/JCER.2023.3.36.1.143
- 윤민종, 김기현, 한도희 (2015). *대학 비진학 청소년 역량개발 정책사업 추진방안 연구* (연구 보고 15-R20). 세종: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은기수, 박진, 권영인, 정수남 (2011). *청년기에서 성인기로의 이행과정 연구II: 취약위기계층 청년의 성인기 이행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 11-21-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장기영 (2008). 대학 졸업자의 첫 노동시장 이행 성과 결정요인.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누리, 김은경, 공현 (2019). *대학 비진학 청년 현황 및 심층면접조사: 특성화고 졸업자를 중심으로*. 서울: 서울특별시 청년허브.
- 정영순, 임유진 (2016). 고졸 청년의 좋은 일자리 이행추이와 이행화률 영향요인 분석 전문계와 일반계 비교. *사회보장연구*, 32(4), 153-181.
- 함병수 (1990). 비진학·미취업을 위한 종합대책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3), 48-65.
- Apple, M. W., & Beane, J. A. (2007). *Democratic schools: Lessons in powerful education*, (2nd ed.). Portsmouth, NH: Heinemann. [마이클 애플, 제임스 빈. (2015). 마이클 애플의 민주학교: 혁신 교육의 방향을 묻는다. 강희룡 번역. 살림터.]
- Arnett, J. J. (2004). *Emerging adulthood: The winding road from the late teens through the twenties* (1st ed.). New York: The Oxford University Press.
- Denzin, N. K. (2017) The research act: A theoretical introduction to sociological methods (1st ed.). New York: Routledge. doi:10.4324/9781315134543

- Eisner, E. W. (1979). *The educational imagination: On the design and evaluation of school programs*, (1st ed.). New York: Macmillan.
- Free, J. L., & Križ, K. (2022). The not-so-hidden curriculum: How a public schoo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minorizes migrant students. *Equity & Excellence in Education*, 55(1-2), 50-72. doi:10.1080/10665684.2022.2047 409
- Jackson, P. (1968). *Life in classrooms: In teaching and learning in the primary school*, (1st ed.). New York: Holt, Rinehart and Winston.
- Yin, R. K. (2009). *Case study research: Design and methods* (4th ed.). Sage. [로버트 K. 윤(2011). 사례연구방법. 신경식, 서아영 번역. 한경사.]
- 교육통계서비스 웹사이트-교육통계-유초중등 교육통계-연도별추이-연도별 졸업 후 상황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2025년 9월 5일 인출.

ABSTRACT

High school experiences and transitions to adulthood of non-college-bound youth: Focusing on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Nahm, Jaewook* · Kim, Youngjin** · Yun, Tae-Young*** · Jo, Eunjin****

This study explores the high school experiences and post-graduation transitions of general high school graduates who did not pursue higher education. Using a case study approach,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eight general and two vocational high school graduates in Sejong City, analyzing data through the concepts of hidden and null curricula. Our results show that collective pressure to see college as the “normal” path, negative perceptions of non-college-bound students, and limits on individualized career preparation operate as a hidden curriculum. Career and independent living education were marginalized as part of the null curriculum, leaving students underprepared for adult life. Participants reported alienation and anxiety, adopted strategies ranging from compliance to resistance, yet commonly entered the labor market with limited support. This study highlights the institutional nature of general high school curricula, repositions non-college-bound youth as active agents, and calls for recognition, inclusion, and integrated lifelong career guidance and life-skills education to support diverse transitions to adulthood.

Key Words: non-college-bound youth, general high school, hidden curriculum, null curriculum, school-to-work transition, case study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Assistant Professor, jwnahm@knue.ac.kr

**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Ph.D. Student, passiontoto@knue.ac.kr

*** Korea Worker Institute·Union Center, Research Fellow

**** Chungbuk Foreign Language High School, Teacher